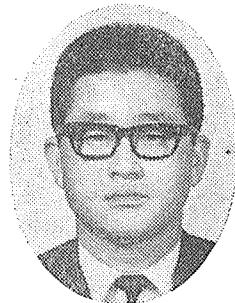


●就任辭

財政安定・組織의 效率化・ 國際的 地位 향상

事務局長 朴 大 權



새해를 맞이하여 全國에 계시는 會員 여러분들의 萬福하심을 衷心으로 祝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간 協會의 發展을 위하여 보내주신 聲援과 協助에 대하여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해 12月 22日 會長님의 命을 받아 事務局長에 就任하게 되었습니다. 學問과 經驗이 不足하고 德望이 不足한 사람이 重責을 맡게되어 慄懼함을 禁할 길 없으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指導鞭撻이 있을 것으로 믿고 誠心誠意껏 맡은 바 責務를 遂行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協會는 1955年度에 創立되었읍니다. 어언 20年이란 歲月이 흘러 이제 成年의 年輪을 쌓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뜨거운 情熱과 使命感으로서 協會를 키워온 精誠으로 長足의 發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發展過程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當面問題들이 있으며 앞으로 解決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總意를 모아 하나 하나 차분히 解決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協會가 當面한 問題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于先 가장 重要하고 時急한 問題는 自立財政의 問題입니다. 더구나 금년도부터는 그간 國家로부터 받아오던 補助金마저 받지 못하게되어 財政의 難關에 부딪치게 되었읍니다. 本會의 運營財源은 會費와 補助事業收入金으로 充當되어 왔읍니다. 그중 補助金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던 터에 中斷되었음은 큰 打擊이 아닐 수 없읍니다. 自立財政에 바탕을 둔 協會運營은 우리가 追求하던 重要한 目標의 하나로서 언제가는 補助에 依存함이 없이 自立하고자 그간 꾸준히 많은 努力を 해 왔읍니다만 그 結實을 아직 얻지못하고 있읍니다.

協會가 當面한 財政의 危機를 打開하고 앞으로 財政自立을 實現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첫째의 責務가 아닌가 생각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自立財政의 確保의 實現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を 傾注해 보겠습니다. 이는 會員 여러분들의 全幅의 協助의 뒷받침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聲援을 잔곡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協會는 圖書館과 圖書館人们的 聯合體로서 우리들自身을 위하여 設立한 團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協會의 모든 問題는 會員 여러분들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協會의 發展은 圖書館 全體의 바람직한 發展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協會의 發展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組織構造의 效率化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部會 및 地區協議會와 專門委員會 그리고 理事會와 評議員會 및 總會와 事務局등의 여러 組織이 相互緊密하고 協助의 運營體制를 이를으로서 보다 發展의 總和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러한 基礎위에서 모든 問題를 解決해 간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점은 우리 協會가 對外的으로 보다 強力한 印象을 갖는 團體가 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國內活動은 물론이지만 國際活動을 보다 활발히 推進하여야 되겠습니다. 美洲나 유럽의 諸先進國에서만 開催할 수 있었던 LFLA總會 등을 우리 協會가 誘致하여 開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實質로 國家社會가 必要로하는 團體로서 成長하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우리 協會設立 目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成年이된 우리 協會는 이제 自立하여 目標에 到達할 수 있는 能力を 걸쳐야 되겠습니다. 事務局長의 重任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全幅의 後援과 聲援을 거듭 呼訴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家庭에 祝福이 깃드시길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